



제목	Superstition as Ideology in Iranian Politic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1. 6. 6.
저자	Ali Rahnama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334
ISBN 또는 ISSN	978-1107005181

내용 요약

미신 관련 독서가 개인적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교적·정치적 차원에서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저명한 이란의 지식인 라네마(A. Rahnama)가 쓴 『이란 정치에 있어서 미신 이데올로기』는 16세기의 사파비 왕조 시대부터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미신이 이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다.

미신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내구성 있게 된 것은 17세기 이란의 유명한 성직자 마즐레시(M. B. Majlesi) 때문이다. 마즐레시는 이란 시아파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신자들에게 신앙의 일부로서 환상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초인간적인 사람으로 숭배하도록 독려했다.

라네마가 페르시아의 근원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정치에 대한 예를 통해 보여 주듯이, 무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Mohammad Reza Shah Pahlavi)와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ud Ahmadinejad)와 같은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측근을 거룩한 자로, 자신들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악을 구현하는 자로 간주한다.